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송하진 도지사는 3일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새해 첫 업무로 시장·군수와 함께하는 '코로나19 방역 점검 회의'를 열고 현장 중심의 철저한 방역 관리를 당부하고 있다.

'올해도 역시 방역이 최우선'

송하진 도지사, 시장·군수 특별방역대책회의로 새해 업무 시작

"예방접종 동참 도민 여러분께 감사... 올해는 감염병 극복의 해로"

송하진 도지사는 새해 첫 업무로 시장·군수와 함께하는 '코로나19 방역 점검 회의'를 열고 현장 중심의 철저한 방역 관리를 강력히 주문했다. 송 지사는 최근의 방역상황을 고려해 매년 실시 해오던 시무식을 생략하고 방역이 최우선 과제라는 신념대로 임인년 새해 첫 업무를 시·군 방역대책회의로 시작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현재 전북도 일평균 확진자가 전월 대비 약 3배 증가한 100명대 발생, 오미크론 환자 발생 비중 증가 등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도와 시·군이 함께 위기를 극복 하자는 의지로 풀이된다. 송하진 지사는 "2년 동안 지속되는 코로나19와의 사투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야 하는 방역 담당 공무원들의 노력이 감사 드린다"며 회의의

시작했다. 송 지사는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도 "2022년 도정 운영 사자성어인 '견인불발'의 자세, 즉,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해 반드시 극복하겠다는 의지로 방역에 임해 줄 것"을 강조했다. 송 지사는 이어, "모든 일이 그렇듯 중간에 포기하면 영원히 결과를 얻을 수 없다"며 "법정 감염병의 종류만도 87가지나 되고, 모두 인간이 극복해왔듯이 코로나19 역시 끝까지 참고 견디면 2022년은 인간이 또 하나의 감염병을 극복한 해로 기록될 것"이라며 코로나19 방역 대응체제와 종식 의지를 강력하게 밝혔다. 송 지사는 또한, "작년 예방 접종률 총력 제고로 관련 지표에서 전국 상위권을 기록해 지역 내 감염 확산을 방

지에 준 것에 대해 도민 여러분의 동참과 관련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르신 방문접종 추진 및 읍·면·동별 예약 안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변 학부모들에게 3월부터 시행되는 12~18세 방역패스 시행을 적극 홍보해 소아·청소년 접종률을 제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송 지사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강화된 거리두기 연장은 환자수 감소에 전환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이해를 바라며, 고통 감내하는데 도움되는 조치를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또 유행상황이 다소 안정적인 강화된 거리두기 기간을 의료 대응체계 확충을 위한 마지막 준비기간이라고 생

각하고 병상 및 인력 확보를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오미크론 환자발생 비중이 점차 증가세로 확산을 최대한 늦추면서 밝혀지는 정보를 바탕으로 역학조사 등 적극 대응을 통해 지역 확산을 예방하고, 추가적인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 확보에는 한계가 있으니, 시·군에서는 재택치료 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도민들을 위한 시설확보 등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송하진 지사는 "도와 시, 군은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며 "도민 여러분이 마스크 쓰기, 주기적 환기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와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실천문화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호상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나의 내 가족들을 위한 일입니다

마한 역사문화권에 전북 포함

역사문화권 정비 특별법 국회 통과... 역사 연구 활발해질 듯
전북도 "후백제 역사문화권 특별법 추가 위해 노력할 것"

마한 역사문화권에 전북지역이 포함됐다. 기존의 영산강 유역 중심의 전남 일대에서 전북을 포함해 충청, 광주까지 확대되며, 마한 역사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마한 역사문화권에 전북지역이 포함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법률안에 따르면, 기존의 제2호 제1호마목 중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전남 일대'를 '충청, 광주, 전남, 전북지역을 중심으로'로 관련 조항을 개정했다. 그동안 특별법에 고구려·신라·백제·가야·탐라와 함께, 역사문화권을 구성하는 마한 문화권의 경우,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전남 일대로만 규정돼 있어 전남과 함께 고대 마한의 중심지였던 전북지역이 제외됐다. 하지만 마한은 역사적으로 전북과 광주, 전남지역 등에 걸쳐 존재했고

특히, 전북지역은 기원전 3세기 이전부터 마한 세력의 중심지였다는 고고학과 역사적 자료 등을 근거로 이상직 의원 등 전북지역 정치권과 함께, 관련법 개정안 통과와 필요성을 강조해 마한 역사문화권의 범위를 전북·충청·광주지역으로 확대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대안 반영으로 통과된 법률안은 전북과 광주, 전남지역에 걸쳐 존재했던 마한의 역사성과 문화유산 가치를 알리고 지역발전을 이룩하는 것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전주를 왕도로 삼아 전북 지역 일원에 존재했던 후백제는 통치이념과 체제, 문화를 발전시켰음에도 과도기적 국가로 인식돼 역사적 가치규명과 보존 등에 소외돼 왔고, 역사문화권 특별법에도 누락되어 있는 바, 앞으로 후백제 역사문화권을 특별법에 추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 검사시설 신축

전북도, 국비 30억 확보도 동물위생시험소 내에

전북도 동물위생시험소 내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정밀 검사시설이 새롭게 구축된다. 도는 3일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2022년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시설인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 국가 예산 3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국가제안 질병의 정밀검사를 위해 생물안전 3등급(BL3) 차폐실험실을 신축해 신속·정확하고 안전한 검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도는 농식품부의 서류심사와 심의 및 현장평가를 거쳐 2022년 국비 지원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오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60억 원(국비 30억)이 투입돼, 장수군 소재 동물위생시험소에 음압부검실을 갖춘 생물안전 3등급 검사시설을 지하 1층과 지상 2층의 연면적 1,210㎡ 규모로 신축하게 되며, 유전자 검사실, 별



균실 등 각종 시설을 갖춰 가축전염병 바이러스를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하게 된다. 이희선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이번 정밀검사 시설 신축으로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신속한 진단체계를 구축해 질병 확산을 방지하게 됐다"며 "양돈농가와 축산 관련 단체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축 발생 시 신속히 신고(1588-4060)해달라"고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